

‘8000만 유커 잡아라’ 동남아까지 뛰어든다

(중국인 관광객)

동남아, 비자수수료 면제 등 ‘유커 모시기’ 일본은 ‘텍스프리’로 중국인들 입맛 잡아 문체부, 불량여행사 퇴출…질 향상 주력

1년에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이 약 8000만 명, 2020년에는 2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유커) 유치 경쟁이 2016년 초부터 뜨겁다. 한국과 일본이 잇따라 중국인 관광객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가세하고 있다.

●양과 질, 두 마리 토끼 겨냥한 한국

정부는 8일 ‘중국 단체관광 시장 개성 대책’을 발표했다. 1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6 한국관광의 해’ 개막식에서 밝힌 비자 수수료 면제, 발급요건 간소화, 면세점 즉시 환급제 실시 등에 이은 중국 방문시장 장려책 2단이다.

1월 정책이 중국인 관광객 증가세를 높이는 양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책은 관광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질 낮은 저가단체관광 상품을 운영하는 전담여행사를 상시퇴출하고, 자격증 대여나 무자격자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에서 바이링허우(80년대생 출생) 주링허우(90년대생 출생) 같은 젊은 세대가 크게 늘고, 쇼핑에 쏟았던 선호 콘텐츠도 체험관광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불량 저가상품 퇴출로 방한상품 가격이 올라가 일시적으로 한국관광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만, 고품격 관광상품 발굴 등 후속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선 인프라 바탕, ‘텍스프리’의 강점 극대화

일본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이 1973만

7000명을 기록, 1323만2000명에 머문 한국을 2008년 이후 7년 만에 역전했다. 시장 역전도 뉴스였지만, 격차가 650만여명에 달한 것은 더 충격이었다. 2015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액도 역대 최대인 3조엔 대(30조원 대)를 기록했다.

일본은 15년 안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을 3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1월 관광객 증대 회의에서 “도로, 교토 등의 ‘황금 코스’ 외에 일본 전역의 매력을 세계 관광객에게 선보여야 한다”며 “3000만명 달성을 위해 지방 국제항공편을 늘리고, 입국심사 간소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80년대부터 전격적으로 조성한 숙박, 교통, 레저 등의 각종 관광 인프라가 탄탄하다. 여기에 기존 가전제품, 카메라 의류 정도였던 면세품목에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 등을 추가하고, 2만1000여개에 달하는 ‘텍스프리’(사후면세점)를 강화하면서 쇼핑에 관심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태국, 말레이시아도 비자완화 등 유커 유치 나서

동남아 관광강국 태국은 지난해 방콕의 폭탄테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3000만 명을 기록했다. 이중 중국 관광객은 무려 800만 명. 최근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에서 보여준 폭발적 행태가 외신을 통해 종종 화제가 되고 있지만, 800만이란 숫자가 보여주듯 태국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절대 감의 위치다.

태국은 현재 중국인 관광객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단체관광객이 지정여행사를 통해 직항편으로 오면 도착비자를 발급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짜리 복수비자도 발급하고 있다.

연간 중국인 관광객 800만명을 목표로 세운 말레이시아도 1년간 온라인 여행비자 발급과 15일 이하로 거주할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국내 관광의 모든 것

내 나라 여행 박람회, 코엑스에서 4일간 개최



국내 관광 콘텐츠가 한 자리에 모이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사진)’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2004년 시작해 올해 13회를 맞는다.

올해 박람회 테마는 ‘내 나라, 새로운 발견!’. 국내여행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 등 전국 360여개 기관이 650여개 부스로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캐치프레이즈 주제관 ‘내 나라 테마마을’에서는 골목여행과 시장여행 등으로 구성된 ‘우리 동네 여행’, 기차 버스 지하철 배 등을 이용한 ‘대중교통 여행’, 바쁜 일상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심포 여행’과 전통문화, 배움, 예술, 봉사활동을 통해 여행에 또 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플러시알파(+α) 여행’ 등의 테마존을 마련했다. 가상현실(VR) 장비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행지를 체험하는 ‘가상 여행’ 존도 신설했다. 또한 ‘2016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제천, 통영, 무주의 도시관광 콘텐츠와 ‘한국관광 100선’과 2016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정보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내 나라 여행마블’, ‘볼론투어 벽화 타일 그리기’, ‘질풍공예체험’, ‘옹기 만들기 체험’ 등 관람객이 자녀와 함께 지역 문화를 경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美 LA ‘월서 그랜드 호텔’ 상량식

한진그룹 ‘73층 랜드마크’ 내년 상반기 완공



한진그룹은 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LA에 위치한 ‘월서 그랜드 호텔(사진)’ 프로젝트 공사 현장에서 상량식을 가졌다.

이날 월서 그랜드 호텔의 콘크리트 외관 작업을 완료한 후 옥상인 73층에 대형 크레인으로 대들보를 상징하는 철재 구조물을 설치했다. 월서 그랜드 호텔은 2014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17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호텔 규모는 건물 본체가 73층, 약 252m이고 9월 공사가 끝나는 청담까지 포함하면 약 335m로 LA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된다. 상층부에는 객실 900개 규모의 호텔이 자리 잡고 저층부에는 7층 규모의 상업 공간 및 컨벤션 시설, 3만7000㎡ 규모의 오피스 공간이 마련된다.

김재범 전문가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봄, 꽃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에버랜드 ‘튤립축제’·광양 ‘매화축제’ 등 풍성

따스해진 기온과 함께 봄을 알리는 최고의 전령은 역시 화사한 향기와 함께 오는 꽃 소식이다. 3월 들어 전국적으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꽃 축제가 전국에서 열린다.

17일부터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튤립 축제’가 열린다. 아펠도, 시네다블루, 핑크 다이아몬드 등 100여 종 120만 송이의 튤립이 장관을 이루는 이 축제는 4월24일까지 열린다. 에버랜드는 이번에 축제를 대표할 랜드마크로 초대형 ‘플라워 매직 타워’를 새로 선보인다. 포시즌스 가든과 장미원 사이 신전분수 지역에 위치한 ‘플라워 매직 타워’는 약 26m 높이로 튤립, 장미, 데이지 등 봄꽃을 소재로 한 꽃 장식으로 꾸몄다. 또한 밤이 되면 음악에 맞춰 1만2000송이의 LED 장미가 빛나는 ‘LED 뮤지컬 로즈가든’도 축제 첫날부터 운영한다. 12대의 페레이드카와 88명의 공연단이 출연하는 페레이드 ‘카니발 판타지 페레이드 시즌2’도 하루 1회 공연한다.

18일부터는 섬진강변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는 매화를 감상할 수 있는 ‘광양 매화축제’

가 열린다. 매년 100만명 이상 방문하는 ‘광양 매화축제’는 올해로 19회를 맞는다. 43개의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가 열리고 매화를 주제로 한 전국 사진촬영대회도 열린다. 매화축제에 앞서 12일부터 열린 느랭이골 빛축제와 함께 돌아보면 좋다.

19일부터 8일간은 전남 구례에서 ‘구례 산수유꽃축제’가 열린다. 봄철 대표적인 꽃인 산수유의 고운 자태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를 새로 조성했고, 가족, 연인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북 괴산에서는 세계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천연기념물 미선나무 꽃축제가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미선나무는 3월 말부터 4월 초에 꽃을 피운다. 괴산군 칠성면 외장리에는 미선나무 군락지가 있다.

4월에 들어서면 1일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개막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주 왕벚꽃축제, 여의도 봄꽃축제, 섬진강변 벚꽃 축제 등 벚꽃을 테마로 한 축제가 전국에서 잇달아 열린다.

김재범 전문가



17일부터 시작하는 용인 에버랜드의 ‘튤립축제’. 100여종 120만 송이에 달하는 튤립이 화사하게 피는 장관을 볼 수 있다. 튤립축제 외에 광양 매화축제, 구례 산수유축제 등이 봄철 꽃축제로 3월에 열린다. 사진제공 | 에버랜드

내일투어 ‘홍콩 금까기’ 5만원 할인 이벤트 개별자유여행 전문 내일투어는 31일까지 ‘5만원 즉시할인 받고 홍콩으로 가출하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홍콩 금까기를 예약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0일부터 5월31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홍콩 금까기 여

행 상품에 적용된다. 개인 블로그, 인스타그램, 홍콩여행카페에 “내일투어 홍콩 금까기 여행을 선택한 이유”를 포스팅한 뒤 이벤트 페이지에 포스팅 링크를 남기면, 홍콩 금까기 여행 경비에서 5만원을 즉시할인 받을 수 있다.

강한남성 **롯데카드사원모집**

★효과100%후불제★
미제 정품 (30정) 은박 (32정)
1회복용 5일지속 / 각종캡슐
두통 홍조 쓰림없는강한발기
010-5906-0667 010-3063-0068

강한남자 **미국정품**

★후불제.탁월한효과. 강한발기/각종캡슐
도매가.카드가 010-7600-4116

본사 제품 50% 할인판매

남성도우미걸(일제)	3만원
빅맨(남성분들의 3가지고민해소)	3만원
실리콘 발기줄 3종(대,중,소)	2만원
정력팬티 3매	2만 9천원
남성도우미걸(특대)	15만원



고려물산 공장직영판매 010-5608-1237 010-2655-1326
농협 302-0895-9522-41 고려물산

강한 男子

음경 확대 귀두 확대 조루 치료 발기부전

●미세자가지방 이식술
●주사요법 확대술
●대체진피 이식술
●정관·포경수술
●바세린 및 이물질 제거술
●각종보형물 삽입술

발기부전 봉(팽창형·굴곡형) 임플란트 시술

[수술당일 일반적인 생활가능]

24시간 상담 **대일남성의원**

(代) 02) 457-8778

※일요일·공휴일·야간 예약수술 가능
※5·7호선 군자역 6번출구 농협 2층

당당한 자신감!

남성 수술 상담

음경 길 이 + 귀두 조루수술

★주사요법 확대
★대체 진피이식술
★포경·무도정관수술
★각종 이물질 제거 (바세린 등)
★음경만곡증 (성기형) 교정술
★발기부전수술 (굴곡형.팽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

※수술 당일 샤워, 일반적인 생활 가능

천호역 뉴맨남성의원

02) 477-7523
위치 : 5호선 천호역 2번출구 한국투자증권 3층

www.198282.net

신음소리에서 과성소리까지!

명기

외로운 밤~♡

외로운 남성들을 위로해주는

명기가 최고야

국내산 폴리우레탄으로 재킷 절대 무독성이며, 촉감이 부드럽고, 탄력이 우수, 휴대하기 간편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성인용품점이나 시중에는 없는 **국산품** 입니다. made in korea

★국내최고의제품절대 타지않습니다★

실물보다 더 섹시한 공기인형 "명기" "명기"와 놀다보면 날 새는줄 모릅니다

제품문의 1588-4101/010-3895-4114